산업통상자원부	**보 도 자 료**	http://www.motie.go.kr

2018년 5월 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8.(화) 오후 2시부터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5.8. (화)	담당부서	전력산업과 원전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최우석 과장(044-203-5240) 정종영 과장(044-203-5320)	담 당 자	문경준 사무관(044-203-5253) 홍충완 사무관(044-203-5319)

산업부 장관, 일본 방문에서 에너지 협력방안 논의

- 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면담,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방안 등 논의
- ▸ 원전 안전·해체 포럼에서 한·일 원전 분야 협력 필요성 강조

□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·일·중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5. 8.(화), 일본 동경에서 전력망 연계, 원전안전 및 해체 등 양국간 에너지 분야의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했다.

□ 백장관은 5. 8.(화) 9시부터 소프트뱅크 본사에서 손정의 회장과 면담을 갖고, 재생에너지 협력,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,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.

○ 손회장은 지난 8년간 재생에너지 공급비용이 1/10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졌고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에너지 저장장치에 많은 관심을 표명함. 백장관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의 비용·불안정성 문제가 사물인터넷(IoT)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빠른 속도로 해결될 것이라고 공감했다.

○ 백 장관은 국가 간 전력망을 연계하는 '동북아 수퍼그리드'에 대한 소프트뱅크의 입장을 문의하였으며, 손 회장은 기술적·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러시아·몽골·중국 등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여건 조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.

○ 백장관은 반도체·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의 강점을 소개하면서 소프트뱅크의 투자확대를 요청했다.

- 손회장은 지난해 유니콘 기업 등에 투자하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1천억 달러 규모로 출범시킨 바 있는데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, 향후 한국 투자를 위해 한국의 국부펀드, 연기금 등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.

- 또한, 사물인터넷(IoT), 인공지능(AI), 스마트 로봇 등 소프트뱅크가 집중하고 있는 3대 투자분야를 설명하면서, 특히 인공지능(AI)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이 크다고 강조했다.

□ 한편, 백 장관은 이어서 10시부터는 도쿄 가조엔 호텔에서 개최된 「한 · 일 원전 안전 · 해체 포럼」에 참석했다.

< 행 사 개 요 >

○ (행사명) 한·일 원산회의(KAIF-JAIF) 공동 주최 원전 안전·해체 포럼
○ (일시·장소) '18.5.8(화) 10:00~12:00, 가조엔H 2층 하나츠도이홀
○ (주최/후원) 한·일 원자력산업회의(KAIF-JAIF) / 산업부
○ (참여기관) 한·일 양국 원전 산업계 관계자 등 약 200명
- (우리측) 산업부, 한국 원산회의, 한수원, 원자력환경공단, 한전KPS, 한전기술, 한전원자력연료, 두중, 삼성물산, 현대건설 등 150여명
- (일본측) 경산성, 일본 원산회의, 일본 전력사업자 연합, 도쿄전력, 도호쿠전력, 규슈전력 등 50여명

○ 이 행사는 한 · 일 원자력 산업회의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서, 원전 안전 및 비상대응, 원전 해체 등 양국 간의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했다.

○ 양국은 주제발표를 통해 원전 안전 개선방안 및 해체 추진현황,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규제 강화와 원전 재가동 현황 등을 논의했다.

□ 백장관은 축사를 통해 “한 · 일 양국이 원전의 안전성 강화, 방폐물 관리, 해체 등 공통된 현안에 직면해 있는 만큼, 민 · 관합동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.”라고 강조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문경준 사무관(☎ 044-203-5253), 홍충완 사무관(☎ 044-203-531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한·일 원전 안전·해체 포럼 행사 개요**

○ **(행사명)** 한·일 원산회의(KAIF-JAIF) 공동 주최 원전 안전·해체 포럼

○ **(일시·장소)** **'18.5.8(화) 10:00~12:00, 가조엔H 2층 하나츠도이홀**

○ **(주최/후원)** **한·일 원자력산업회의**(KAIF-JAIF) / 산업부

○ **(행사 내용)** 인사말씀·축사, 한·일 전문가 **주제 발표** 등

○ **(참여기관)** 한·일 양국 원전 산업계 관계자 등 약 200명

- (우리측) **강재열 원산회의**(KAIF) **부회장**, 한수원, 환경공단, 한전KPS, 한전기술, 원자력연료, 두중, 삼성물산, 현대건설 등 150여명

- (일본측) **신 호사카 경산성 에너지청 차장**(Deputy Commissioner), **아키오 타카하시 일본원산회의**(JAIF) **이사장**, 일본전력사업자 연합(FEPC), 도쿄전력, 도호쿠전력, 규슈전력 등 50여명

○ **(행사목적)** 원전 안전 및 비상대응, 해체 등 양국간 현안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

< 세부 일정 >

시 간	내 용	비 고
10:00~10:10	개회인사	강재열 한국원산 부회장 아키오 타카하시 일본원산 이사장
10:10~10:20	**축사**	**산업부 장관** 신 호사카 경산성 에너지청 차장
10:20~10:25	**기념 촬영**	주요인사
10:25~10:40	한일 관계자간 네트워크 (커피브레이크)	
10:40~11:00	**(발표 1)** 원전안전 및 비상대응계획 개선	한수원 중앙연구소 나장환 센터장
11:00~11:20	**(발표 2)** 후쿠시마 원전 현황	日 TEPCO(도쿄전력) Naohiro Masuda 부사장
11:20~11:40	**(발표 3)** 고리 1호기 해체 종합설계 추진현황	한전기술 원전해체사업실 유정무 실장
11:40~12:00	**(발표 4)** 신규 인허가 규제와 원전 재가동	日 FEPCO(전력사업자연합회) Yoshihiro Tomioka 사무국장